

인공지능 기술 발전... 일자리 위협·신직종 등장

광주시 인간의 능력 대체 AI 기술 실증 추진 단순 데이터 입력·문서 정리·계산 AI가 수행 챗지피티 “업무 형태 바뀔 뿐 협력 필수” 답변

‘국가AI데이터센터’ ‘국가신경망처리장치(NPU)컴퓨팅센터 유치 추진’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 등 광주가 인공지능(AI) 무대로 주목 받고 있다.

동시에 광주의 인공지능 실증은 미래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의 발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협력 관계가 형성될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관계기관이 광주 도심 전역을 인공지능 기술 상시 실증·검증하는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공정 방식을 전환(AX)할 수 있도록 데이터·컴퓨팅·실증이 연계된 ‘도시 전역 상시 실증 플랫폼’ 구축 방향,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체계, 국가AI데이터센터·NPU컴퓨팅 기반시설 활용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러 인공지능 실증·상용화 파급력이 큰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 등 5대 생활밀착형 도시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AI 모빌리티 국가시험도시’와 연계해 규제 특화 방향을 구축

하고 통합적인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그림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지를 실험 하는 것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대차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박람회(CES 2026)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50kg을 들 수 있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제조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2028년부터 현대차그룹 메타플랫폼 아메리카(HMGMA)에 우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아틀라스는 장기간 사용을 가정하면 인건비 대비 저렴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국내 공장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광주 도심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로봇) 차량 실증도 인간의 운전능력을 인공지능 기술이 도맡는 다양한 도로환경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실증의 성공은 로봇차량이 인간의 이동을 책임짐에 따라 편해 질 수 있지만 반면 운전기능이 필요한 직업군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광주시가 지난 2024년 8월 공무원들



11일 오후 광주 북구 오동동 광주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설치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 미래차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반차량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

의 당직업무를 폐지하고 ‘AI 당직기’를 도입해 11개월 동안 총 2만1648건의 단순 민원전화 처리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데이터 입력, 문서 정리, 계산 업무 등은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관련 직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업무, 대량의 데이터 분석,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직업군이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은 창의적 문제 해결, 감성적 소통, 윤리적 판단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는 대체할 수 없어 관련 분야 직업군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신기술 기반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AI 윤리’ ‘데이터 관리’ ‘AI 트레이너’ 등 신직업도

속출 등장하고 있다.

챗 지피티(Chat GPT)도 “인간의 직업군을 위협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협력”을 우선 답변했다.

챗 지피티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직업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크게 줄어들거나 형태가 바뀌는 직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핵심 기준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인지, 인간의 창의성·감정·판단이 필요한 지이며 최종 판단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시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의 노동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며 “인공지능은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 1월 출생아수 704명... 4년만에 최고

전국 평균 웃도는 증가율... 생애주기 정책 효과 가시화 광주아이키움2.0 추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광주지역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광주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광역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704명으로 전년 동월(614명)보다 14.7%(90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1월 기준 최고치이며, 전국 평균 증가율(11.7%)을 웃도는 수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 1월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514건)보다 6.6%(34건) 늘었다.

광주시는 이번 지표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반등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혼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된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 일·생활 균형까지 이어지는 6단계 돌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원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통해 양육 초기 부담 완화에 집중해왔다.

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

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6단계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가동 중이다. 특히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출생가정축하 상품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신아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 의료 지원 ▲순자녀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삼삼오오 이웃돌봄 ▲임원아동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는 올해 12개 부서 협업을 통해 총 2909억원 규모의 ‘광주아이키움 2.0’을 추진하고 있다. 52개 과제를 중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표 반등은 광주의 돌봄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라며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빈틈없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가 올해 지역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사업에 59억여원을 투입한다.

광주광역시에는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59억4000만원(국비 51억 5000만원, 시비 7억9000만원)을 투입, 2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 주력 산업인 스마트가전, 뿌리산업 기업 등 227개사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위기 산업을 지원해 신규 고용 창출 378명, 고용 유지 1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 등 2개 분야로 구성했다.

먼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광주지역 주력 산업인 융·복합 가전(스마트가전, 뿌리산업 포함) 업종의 자생력을

광주시, 지역 맞춤형 일자리에 59.4억 투입

지역주도 일자리 지원·고용이음 위기극복 등 2개분야 10개 사업 추진 가전·뿌리산업 227개 기업 지원... 고용 창출 378명·유지 1300명 목표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 ‘성장동력 고도화 스케일업’ ▲기술 이전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고도화 기반 성장지원’ ▲제품 브랜딩과 디자인 개선을 위한 ‘기업브랜드 강화 지원’ ▲공동이용시설·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는 ‘고용환경 혁신패키지’ ▲지원금·장려금·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용안착 활성화 지원’ ▲고용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고용인프라 강화’ 등 6개 사업에 39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생산·서비스·제조업 등 지역산업에 따라 고용 위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서비스·제조업의 가전·고무제품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 근로자를 중점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유지 조치 중인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유지 조치가 끝난 기업 근로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고용이음 패키지 지원’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이음 장기근속 장려금’ ▲이·전직과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고용이음 안착 지원금’ ▲고용이음

선제대응 모니터링 등 4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별 신청 기간에 따라 예산 소진 때까지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세부 지원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www.gwangju.go.kr), 광주상공회의소(www.gicci.or.kr), 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광주디자인진흥원(www.gdc.or.kr), 광주경영자총협회(www.gjef.or.kr)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8월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 주최하고 사업수행기관들이 공동 주관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신종팔 기자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203억 투입

근로자 고용 안정·실직자 재취업·기업 지원 등 14개 사업

전라남도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3억 원 규모의 기업·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여수(석유화학), 광양·순천(철강)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상용직·일용직 근로자 고용안정,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석유화학 업종에는 총 122억 원을 투입한다. 현장 근로자를 위해 ▲연 소득 5천 500만 원 이하 상용직 대상 50만 원의 건강복지비 ▲최근 3개월간 30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대상 50만 원의 건강복지비 ▲여수 소재 석유화학 기업 신규 취업자 대상 300만 원의 취업장려금(3회 분할) 등을 각각 지급해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실직자에게는 ▲긴급생계안정비 50만

원 ▲구직활동 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직무전환 등 직업훈련과 재취업 상담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매출 감소 기업에 최대 1천500만 원의 고정비용 ▲신규 채용 시 인당 6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철강 분야에는 총 81억 원을 투입해 ▲연 소득 5천500만 원 이하 상용직 근로자 대상 50만 원의 건강복지비 ▲신규 취업자와 이·전직 근로자 대상 3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생애 최초 취업자는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숙련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생에게 최대 15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유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